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시험」 형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2)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0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③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④ 방조범은 2종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① ② ③ ④

[정답] ③

[해설]

- ① O : 대판 2010.2.11, 2009도9807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64 ①
- ② X : 일반물건방화죄는 자기소유·타인소유를 불문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요하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제167조 제1항 참조).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보충문제&심화문제 48** ②
- ③ X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4, 94도1949).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보충문제 50** ②
- ④ X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판 1977.9.28, 76도4133).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306** ① :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보충문제&심화문제 166** ④
- ⑤ O :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죽고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보충문제&심화문제 48** ②

05.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 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② 민원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

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 ③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④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해설]

* 사실의 착오문제에 교사의 착오를 결합한 사례이다. 이 경우에도 사실의 착오이론에 따라 풀면 된다. 레마노트 20p. 사실의 착오 59p. 교사의 착오

- ① X : 피교사자 乙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느 학설에 따르든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 ② X : 피교사자 乙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판례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하나, 과실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113** ①
- ③ X : 교사자 甲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라고 보는 경우 어느 학설에 따르든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 ★
- ④ O :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는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389** ③

0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양갈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기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 ②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 ③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 ④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 우연피난)의 해결에 관한 무죄설을 묻는 문제이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보충문제&심화문제 71** : 레마노트 27p.

- ① O : 무죄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148** ③ ④ ①

- ② X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하는 입장은 불능미수범설이다. ★
- ③ O : 무죄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이론·학설문제 22**. ② ★
- ④ O : 무죄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07.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A가 칼을 들고 친구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 ③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④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행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④

[해설]

* 정당행위(제20조)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175** ② 보충문제&심화문제 94 ④

- ① X :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친구 甲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1.24, 83도1873). ★
- ② X :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6.10.27, 2016도9302).
- ③ X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9606).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기본문제 161** ③
- ④ O :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1.28, 2003도3972). **기출문제집 형법각론 기본문제 78** ⑦ : **이론·학설문제 65**, ④